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개명 후 본격적으로 협회 활동 개시

자원순환사회 구축 시대적 흐름 부응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회장 정수용)가 지난 2월 정기총회 당시 정관개정에 따른 법적절차를 지난 달 마무리 짓고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에서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로 개명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발음과 이해가 보다 용이하도록 명칭을 바꾸게 된 협회는 영문명도 KPRC(korea Plastic Recycling Corporation)에서 KPRA(korea Plastic Recycling Association)로 바뀌었으며 홈페이지도 www.pra.or.kr로 변경했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2005년 유리병 전년대비 판매 3.9% 감소

제품 경량화 및 홍보 필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윤국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자동제병 8개사의 유리병 판매량이 전 반적인 관련 업계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년대비 3.9%감소한 75만7593톤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 조사, 발표한 자동제병 8개사의 지난해 유리병 생산량은 79만6천1백 90톤으로 2004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유리병 생산 및 판매현황에 의하면 병 종류별 판매량의 경우 맥주 소비의 증가로 맥주병 매출이 22.5% 증가한 반면, 소주소비의 감소로 소주병 매출은 2.3% 감소했다.

소비자의 웰빙바람과 함께 차차 줄어드는 청량음료 시장의 감소로 청량음료병 매출은 21.7%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2004년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건강영양음료병 매출도 지난해 기점으로 1.8% 소폭 감소했다. 그 외 화장품병(1.0% 증가)이 지속적인 감소에서 벗어나 제자리걸음의 매출을 보여줬으며, 농약병(5백8.6% 증가), 기타병(19.2% 증가)등이 매출증가를 보였다. 또한 식품조리병(0.2%감소)과 수출병(35.7%감소)이 매출감소세를 보여줬다.

지난해에도 제병업체가 생산을 조율해 과다 출혈 경쟁은 피할 수 있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로 시장가격의 안정화에 함께 하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리병 시장은 관련업계의 매출에 좌우됨에 따라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한 감소세를 피할 수 없었으나, 제병업계에서 우리의 친환경적인 재료의 이점을 이용해 제품의 경량화와 홍보로 타 용기제품을 유리화 할 수 있도록 노력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지속성장 분과위원회 개최

김일영 위원장 선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중우)은 지난 달 21일 팔래스호텔에서 지속성장분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일영 신안포장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골판지조합은 금년 1차 정기 이사회에서 조합 산하 분과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신설한 지속 성장분과 위원회는 골판지포장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회원 상호간 신뢰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골판지포장산업 2세 경영인과 소장경영인을 대상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골판지포장산업의 지속성장 전략에 대해 서울대 이학래 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고, 조합 김진무 전무이사의 골판지포장산업의 정책 현안 탐구, 기타의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집행부 선출에서는 아이팩코리아 임명섭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신안포장의 김일영 대표이사가 만장일치로 추대,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안포장의 김일영 대표이사는 “회원들이 추천해 주신 만큼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구성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지속성장 분과위원회 개최

유관단체

될 운영위원들과 긴밀히 대화해서 업계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회원들의 추대를 거쳐 이사회 추천과 이사장이 임명함으로서 선출된다.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제 2대 회장 선임

이광훈 롯데칠성음료 사장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회장 이광훈) 2대 회장으로 이광훈 롯데칠성음료 사장이 선임됐다.

지난 달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회장은 “재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이 회장은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장확대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의무생산자의 환경비용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모두 윈-윈하는 안정구조를 만들 뿐 아니라 페트병이 환경친화적인 용기로 인식되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유관단체, 연구소, 국내외의 재활용 단체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회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상품진흥원

제1회 친환경상품 유통전문가 교육 실시

참가대상은 유통마케팅 방법 및 친환경 상품법 등 교육

친환경상품진흥원(원장 이상영)이 친환경상품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수요 급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1회 친환경상품 유통전문가 교육」을 개최한다.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성공적인 유통마케팅 방법, 친환경상품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등 관련 제도 소개,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지원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친환경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유통업체(온라인 포함) 관계자,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사업자 단체 마케팅·유통 관계자, 그 밖에 유통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다.

참가비용은 20만원이며 신청자는 이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화 : 02-358-6800